

LG화학, 중국 선두 화학기업 “도약”

난연 ABS에 투명 ABS 수출 확대 ... LG전자는 휴대폰·디지털TV 중점

LG그룹이 2010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전자와 화학을 중심으로 선두권 진입을 선언했다.

LG전자는 휴대폰과 디지털TV 분야에서 선두지위를 공고히 하고, LG화학은 정보전자소재 사업과 고부가산업 사업 확대를 확대키로 했다.

LG화학은 중국에서 정보전자소재와 고부가산업 사업분야의 매출비중을 확대해 국내시장과 같은 균형있는 사업구조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유가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난연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와 투명ABS 등 프리미엄 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현지 생산기지의 원가경쟁력 제고에 집중키로 했다.

정보전자소재 분야는 중국 IT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편광판과 2차전지를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강화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세계적인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LG전자는 경쟁우위의 휴대폰과 디지털TV를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부 터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조직을 제품별로 분리하는 전문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휴대전화는 4월 현지 출시한 초콜릿폰의 인기몰이를 바탕으로 향후 멀티미디어 기능과 감성적 디자인을 갖춘 고가형 제품으로 승부할 방침이며, 디지털TV는 50인치 이상 PDP TV와 42인치 이상 LCD TV 등 대형제품 판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 중국지역총괄 우남균 사장과 LG화학 중국지주사 나상진 상무는 6월5일 중국 Beijing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LG의 중국 프리미엄 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화학저널 2006/06/08>